

環境廳告示 제84-10호

환경청고시 제83-4호(83. 3. 26) “유류의 유허 함유 기준설정 및 사용지역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84년 5월 30일 環境廳長

燃料用油類의 유허함유 기준설정 및 사용지역에 관한 고시중 改正告示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중 “始興郡” 다음에 “南楊州郡”을 추가하고 “마”목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釜山直割市
- 바. 大邱直割市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중 “아”목 내지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忠淸北道
- 자. 忠淸南道
- 차. 全羅北道
- 카. 全羅南道

부칙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재 지	발전소명	사 용 량(BPCD)
釜山直割市	釜山火力	全量

(전체 유허함유량을 2.5 % (B-C유의 중량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 B-C유와 석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産油国短信 □

이란—이라크, 「制限的 休戰」에 합의

이란과 이라크 兩國은 모두 Javier Perez de Cuellar UN사무총장의 제의에 따라 民間地域에 대한 「制限的 休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官營 IRNA通信에 따르면 Cuellar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이란 및 이라크 공격을 중단하라는 그의 제의를 수락할 것인지의 与否에 대해 12일까지 통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li Khamenei 이란大統領은 이에 대해 「이라크가 만약 民間地域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경우 이란도 이에 거꺼이 응할 것이다」는 내용의 回信을 보냈다. 그리고 이라크側도 UN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反應을 표명, 이라크官營 INA 通

信은 「이라크外務省이 最高革命委員會로 부터 UN사무총장의 제의를 수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종전에도 이라크가 이같은 제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란이 계속 거부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中東을 순방중인 Cuellar 사무총장은 이란과 이라크를 직접 訪問하고 있진 않으나 兩國의 지도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外交소식통들이 말했다. 이라크空軍은 지난 5일 이란의 Baneh를 공격, 수백명의 민간인을 殺傷했으며 이에 대해 이란은 Basra를 비롯한 이라크都市를 맹폭한 이후로 兩國은 서로 民間地域에 대해 보복공격을 자행하여 왔다. *